



##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0호 (2003 여름)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사색을 위한 인용 □

### 영혼과 육신

박완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미소(微小)하고 속절없는 것들한테 마음붙이려 드는 것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해서가 아닐까. 이렇듯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건만, 그러나 역시 죽음은 무섭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따라 죽고 싶어 몸부림치던 때가 엇그저께 같건만 따라죽고 싶은 비통과 절망의 극치가 순간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을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배반감을 느낀다. 어찌 고통뿐이라, 내 마음속에 영원처럼 각인된 사랑의 순간, 그것 때문에 태어난 양 믿어 의심치 않던 삶의 비의(秘意)도 결국은 소멸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을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죽는 것은 몸일 뿐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다 만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먼저 간 사람과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그곳이 허(虛)든 무(無)든 신의 섭리든 간에, 그곳으로 비상을 하든지, 추락을 하든지, 빨려들든지 할 것이다. 설사 그 순간에 우레와 같은 깨달음이나 쾌감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느낀 것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육신이 없는 대오각성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죽음이 무서운 것은 기억의 집인 육신이 소멸한다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사실 때문이고, 내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영혼이 있으면 뭐 하나, 육신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보나 싶어서이다. 육신에 대한 찬탄 없는 첫사랑의 기쁨을 말한다면 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서로 끌리고 사랑하여 결혼한 남자에 대해 내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 건 근육질의 몸이

아니라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노라고 말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눈빛,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그런 좋은 심성이 무슨 수로 겉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눈빛도 미소도 육신에 속한 게 아니던가.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의 몸이 생겨날 때 나는 게울 것 같은 이물감을 가졌고, 점점 부풀어 심장까지 차 오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죽을 힘을 다해 내 몸으로부터 떼어냈다. 내 몸의 진액을 짜내어도 짜내어도 고 작은 것은 허기져했고, 날마다 포동포동 살이 찌는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씻기면서 날로 굳세고 아름다워지는 몸을 보면서 느낀 사랑의 기쁨을 무엇에 비길까. 그런 내 새끼 중의 하나가 봄의 절정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돌연 사라졌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도 곧 뒤따라가게 될 테고, 가면 만날 걸,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만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포옹도 오열도 아니다. 때려주고 싶다. 요놈, 요 나쁜 놈, 뭐가 급해서 에미를 앞질러갔냐, 응? 그렇게 나무라면서 내 손바닥으로 그의 종아리를 철썩철썩 때려주고 싶다. 내 손바닥만 아프고 그는 조금도 안 아파하고 싱글덜 것이다. 나는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그의 청동기등 같은 종아리를 확인하고 싶다. 나는 내 새끼들을 때려 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심하게 때린 기억이 몇 번 있다. 밖에 나가 놀고 있으려니 한 아이가 끼니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동네방네 찾아나서 보니 동무들은 다 집에 있는데 그 애만 안 보인다. 해는 저서 어둡고 온갖 방정맞은 생각으로 마음속이 지옥이 되어 있을 때, 그 애의 모습이 저만치 보인다. 쉴루엣만으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피붙이의 징그러움이다. 달려가 어딜 싸들아다니다가 이제 오냐고 다짜고 짜 때리기부터 한다.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내 새끼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타 들어가던 애간장이 스크르 녹게 된다. 저 세상에서 내 새끼와 다시 만날 때도 그러고 싶은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엑스터시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최고의 엑스터시도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를 수 없는 걸 어이하리.

— 『두부 - 박완서 산문집』  
(창작과비평사)에서

### 〈이경기금〉 모금

故 怡耕 趙要翰 博士 1주기에 즈음하여 고인의 장남 조경진 교수(서울시립대)와 차남 조경덕 교수(서울대)는 고인의 전공분야였던 서양고전철학과 예술철학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을 철학과에 기탁하였습니다. 이에 철학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이경기금〉을 조성하여 고인과 유족의 뜻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고인의 유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용기관과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체국 012948-01-020634

-예금주: 한석환(이경기금)

## 특별한 교수법



유 원 열

최명관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칼날 같은 지성'으로 통했다. 어떤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이건 위선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가하셨고, 미숙한 학생들의 주장에도 오류가 있으면 적당히 봐주시는 법이 없었다. 교수님의 강의는 간결하게 핵심만 제시하는 타입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왜 그 풍부한 지식을 소나기처럼 퍼부어 주시지 않는 걸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갈급한 심정을 모르시는 걸까?

교수님께서서는 열강을 하시지 않고, 의자에 앉기를 좋아하셨다. 혹시 우리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너무 불성실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는 신통치 않은 우리들의 의견을 묻거나 발표를 요구하셨다. 공연히 어설픈 주장을 했다가 교수님의 그 예리한 칼날의 세례를 받을까봐, 우리는 대개 곤혹스런 침묵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나면, 교수님의 말씀은 겨우 몇 마디에 불과하여 우리는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그런데 4학년 마지막 학기엔가 교수님께서 '윤리 교수법' 강좌를 맡으셨다. 교수님께서 교수법 강의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참으로 의아했다. 역시 교수님께서서는 교수방법을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은 채 우리들에게 수업실습을 요구하셨다. 우리가 순번을 정해 차례로 수업을 진행하면, 교수님께서 간결하게 비평을 해주셨다. 그 비평이 우리들에게는 교수님 특유의 '예리한 칼'로 보였다. 교수님께선 결코 겉치레의 칭찬은 하지 않으셨다. 학생의 수업진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셨다.

다행히 나는 차례가 뒤에 있어서 좀 유리했다. 다른 학생들의 실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에 임했다. 논리적 일관성, 쉽고 적절한 예화, 차분한 진행, 별다른 실수 없이 잘 마쳤다는 생각으로 교수님의 비평을 기다렸다.

“유 군이 평이하게 했는데, 윤리수업에서는 감동이 생명이란 말야. 어떻게 감동을 시킬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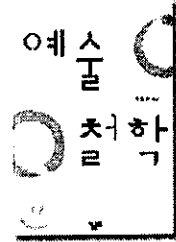
윤리수업의 생명이 감동이라면, 왜 그 방법을 가르쳐주시지 않는 걸까? 나는 아직도 그 감동의 비결을 터득하지 못했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교수님의 특별한 교수법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47회·총신예술학교 교수)

###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조요한 지음

## 예술철학

미술문화 펴냄



현재 예술학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치고 『예술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이 책은 고전으로 자리잡았다. 과거와 현재, 서구문화 수용과 전통의 지속, 이론과 실제, 좌와 우,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틈을 메우기에 이 책이 많은 지성을 감동시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그 결과로 이 책은 지난 세기 '현대 한국의 명저 100권'에 올랐으며, 저자 조요한 선생이 국내 최초로 미학 부문의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으로 추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 조요한 선생은 판을 거듭하던 이 책의 간행을 한동안 멈추게 했다. 두세 편의 글을 덧붙일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머리말을 다시 쓰고, 부분 교정만으로 다시 간행하리라는 말씀을 뒤로한 채 작고하셨다.

1973년 출간되었던 『예술철학』을 토대로 한글세대를 위해 한자를 한글 표기로 바꾸고, 각주를 다듬고, 본문에서 언급되는 작품 도판(102컷)을 추가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부분적인 교정을 했다.

이 책이 다시 발간되어 새로운 세대에게 읽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온갖 이론이 예술계를 점령하여 난해한 현대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기본부터 되짚어 가면서 예술철학의 기초와 우리 예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 전공자뿐 아니라 창작을 하는 예술가나 일반 독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삶과 예술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필독서로 자리잡아왔던 그 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발휘되길 바란다. (값 20,000원)

## 수업 따라가기



장 미 성

미국 유학생할 3년째. 2000년 8월 14일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처음 온 날짜를 평생 기억한다고 한다.)에 버팔로 땅을 밟고 박사과정으로 유학생할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동문회지에 글을 내기로 약속을 하고 막상 글의 주제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첫째는 미국만의 고유 문화를 찾기가 힘들고 (미국을 상징하는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또한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미국만의 고유한 것이라면 기준단위가 그것일 것 같은데 -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mile, feet, inch 등을 고집하고 있다 - 계산법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 내가 경험한 유학생할이 전부인양 (내가 사는 버팔로는 뉴욕주에서 뉴욕시티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이긴 하지만, 도시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시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이다.) 미국 유학생할 전체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글의 주제를 정하는 시간동안 3년의 유학생할을 정리해보는 제기가 되었다. 탈거리나 먹거리, 혹은 여행보다 아무래도 학생인지라 미국 학교 수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처음에 도착해서 다행히도 한국 선배의 도움으로 미리 학교 사정과 과 필수 과목에 대해 듣고 대학원 담당 선생님을 만났다. 미리 첫 학기 수업을 뭘 들을지 결정하고 갔기 때문에 만나서 인사하고 이번 학기 이런저런 과목을 들켰다고 했더니, 그냥 "O.K." 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전지식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유학 첫 걸음을 밟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수줍은 얼굴로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전공 수업은 커녕 영어 과목들에 전공 한 과목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수업의 성적을 받기 위해선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것과 수업 참여도, 중간, 기말 페이지가 있다. 첫 수업시간에 돌아가면서 발표할 부분을 결정하는데 이 때 빨리 손을 들고 가장 자신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말을 잘 못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것을 맡게 된다. 그럼, 나중에 꼭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말하고 표현하는 만큼 얻는 게 많은

곳이다. 못하면 못한다고, 편이를 봐달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는 곳이다. 물론 나 역시 혼자 하겠다고 많이 버텼지만... 한 학기에 수업을 세 개정도 들으니까 각 발표가 겹치지 않게 계획을 세워 발표날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발표준비에 들어가면, 발표에 정해진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만 집중해서 읽고, 정해진 논문이 없으면 선생님께 이메일로 중요한 논문을 소개해 달라고 해야 한다.

또한 발표 준비는 그 논문에 나온 논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의 입장에서 서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냥 논문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다. 자신의 입장이 꼭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일단 짧게 요약하고, 논문의 몇 번째 논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더 많은 질문거리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발표다. 한국에서는 발표할 것을 요약해서 페이퍼로 나눠줬는데, 여기서는 거의 말로만 진행이 된다. 그렇지만 발음에 문제가 있는 우리로서는 요약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내가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과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다. 요즘은 각 교실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파워포인트로 요약물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더구나 수업이 끝나고 과 친구의 공책을 빌려 복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말해본 적도 없고 무섭게 생긴 과 친구라도 못 알아들겠다고 말하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 다 친절하게 대해준다. 심지어 내 경우엔 자신의 필기체를 알아보기 힘들 거라면서 직접 타자를 쳐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친구도 있었다.

다음으로 수업 참여도는 첫 학기에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선생님께서 지적해서 시키지 않는 한 중간에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제가 나와서 무엇을 질문할지 머리 속으로 영어작문을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머리 속으로 영어번역을 하지 않고 바로 말로 나올 수 있는 실력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끼어들어 말을 많이 해야 한다. 여기서는 많이 알수록 많이 말을 한다. 우리나라처럼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는 모르는 것으로 통한다. 영어가 부족할 경우 내 발표 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목을 받아야만 한다. 아니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있다고 저번 수업시간에 토론한 것을 질문하든지, 끝날 때쯤 토론되는 주제와 상관없더라도 준비해간 문제들을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페이퍼는 한국말로 쓰는 것과 동일한데 아무래도 영어로 쓰는 것이라 페이퍼 내는 날짜 훨씬 이전에 주제를 잡아 대충 한번 써서 선생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쓰는 페이퍼와 관련된 중요한 책이나 논문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봤던 책들이나 논문들이 여기서는 오래된 것에 속한다. 또한 교정을 보고 내야하기 때문에 한 학기동안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잘 사귀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다들 막바지에 쓰기 때문에 한 일주일전이라도 먼저 끝내서 교정을 보고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첫 학기엔 어떻게 써도 첫 학기라는 걸 이해해줘서 A 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논문 쓰는 실력이 팍팍느는 미국친구와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서 경쟁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더 어렵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다. 맘처럼 미국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먼저 맘을 열고 웃음으로 대하면 길은 있다. (물론 내가 여학생이라서 유리한 건 있다. 여기도 철학과라 여학생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경우 친구를 사귀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과는 공대나 경영대에 몰려 있는 인도, 중국, 흑인도 없고 거의 다 백인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소한 문화에 적응하고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68회 ·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

### ◇역서 발판을 축하합니다◇

---

조 현 진 번역 / 리오타르와 비인간 / (이제이북스 펴냄)

『리오타르와 비인간』에서는 비인간적인 것이라는 논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의 후기 저작들은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 리오타르가 보기에 비인간적인 것이란 발전을 이루려는 세력인 선진 자본주의에 의해 우리가 탈인간화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이 세력은 컴퓨터 기술로 우리를 대체하려고 한다. “기술-과학”에 의해 행사되는 힘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리오타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리에게 “비인간주의”라는 시류에 저항하라고 요구한다.

(값 5,500원)



## 사색이 잠겨 가는 캠퍼스



정 창 은

이번 주는 유난히도 글 쓰는 일이 많아졌다. 몰아서 하는 내 습관 때문이다. 그간 밀려두었던 철학과 동문 소식지의 원고도 쓰게 되었고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주간지에 게재할 설교 원고("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써야 했고, 이 지역 일간지의 청탁으로 컬럼("목사의 눈치") 한 편도 쓰게 되었다. 글 쓰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다. 그러나 글다운 글을 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없다는 공통 점에 위안을 받으며 계속 써간다.

요즈음은 글 쓰는 것이 아니라 '글 친다'라는 표현은 어떨지? 수년 전 미주 총동문회의 초청으로 워싱턴에 오셔서 "다시 듣는 스승의 강연"을 해주셨던 철학과 은사님께서 소인의 즐겨진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분주한 이유』라는 방송 컬럼집을 받으시고는 '글 쓰는 일은 귀한 일이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일정의 마지막 날 은사님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필기 도구가 필요하다고며 만년필의 명품이라 불리는 몽블랑을 하나 사주시고 가셨다. 명품 만년필로 명품의 글을 쓰라고, 명품의 글을 써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글 쓸 때마다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명품 만년필로 글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으니 글을 친다라는 말이 맞는 듯하고 명품의 글은 아닌 성싶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매주 일나의 설교원고는 꼭 그 몽블랑 만년필로 쓰는 수고와 고집을 아직 누구도 꺾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나는 많은 사색에 잠겨간다. 지난 1980년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이 5월이다. 도착한 다음 날 5.18 광주사건이 터졌고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의 T.V.를 요란하게 장식하는 한국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조국을 떠나기 전에 모교의 캠퍼스를 방문하고 목련 한 그루를 그 당시의 본관 앞마당에 식수하였다. 그 목련의 만개 때가 되면 모교의 캠퍼스는 사색에 잠겨가고 있었는지 하는 생각을 해 온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다. 지금 그 목련이 그 자리에 있는지? 또는 이동을 하여 다른 곳에 심기어졌는지? 아니면 이미 죽어 없어졌는지? 그도 아니면....? 졸업 후 동문이 총장으로 재직하실 때 한 두 차례 모교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련은 나의 머리 속에 있을 뿐 현장은 찾지 않았다. 사색에 잠기는 여율을 없애기 싫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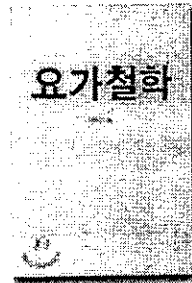
내가 사색을 키우며 밟고 지나다니던 캠퍼스의 영역은 그리 크지 못하였다.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초등학교와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면서도 그 안에 숨고르는 소리가 한적함을 깨뜨리는 정도였으니 말이다. 입학한 후에도 몹시도 불안한 학교 생활을 해야했고 마음을 안정하고 사색에 잠겨 가기까지는 껍이나 많은 시간과 물음이 계속되었다. 철학 하는 것에 대한 자위(?)가 그나마 나를 붙잡아 두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직도 그 사색이 잠겨있는 캠퍼스는 나의 마음에서 떠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사색이 잠겨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리라 생각해 본다. 그곳에서 나는 지금의 나를 그려볼 수 있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흘러가고 있다. 이제 나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 줄곧 어디서나 목사님이라는 소리만 듣다가 문득 사색의 여백을 일깨우는 소리에 귀가 번쩍인다. '누구시더라?' '선배님!, 제가 철학과에 입학했을 때 선배님이 학회장으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잖아요? 사색이 잠겨 가는 캠퍼스를 생각한다. 신문 지상을 통하여 총장은 물러가라, 못나간다 격론의 현장이 알려질 때, 합창단과 만돌린 오케스트라가 미국 순회 연주 차 방문하여 그들을 만났을 때 사색이 잠겨 가는 캠퍼스는 더욱 선명해져간다. 그 선명의 빛이 무슨 색깔인지 불문에 부쳐지면서 말이다. 보고 싶은 상념의 그림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고 있다. (41회·민족장교회 담임목사)

###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 이 태 영 저 / 요 가 철 학 / (여래 펴냄)

요가는 인도를 대표하는 수행법이자 인도의 종교와 철학적 사유에 수많은 영감을 제공했던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요가의 수행체계와 이론을 모르고서는 인도의 종교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은 인도 정통 철학의 한 학파로 확립된 고전 요가 철학을 다루고 있다. 고전 요가 철학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가경』과 그 주석서인 『요가 바샤』를 함께 다루어 고전 요가 사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값 8,000원)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새로운 읽기와 해석



박 홍 순

몇 년간의 연구와 해석의 결과인 학위 논문을 몇 줄로 요약한다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제한된 지면에 학위 논문을 소개하는 것은 결국 논문이 얻어낸 새로운 발견이나 통찰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신약성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읽기와 해석을 제안하는 논문 제목은 *Luke and His Volumes and Their Interpreters: Reading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이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존의 서구 성서학계의 다양한 읽기와 해석을 조사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새로운 성서 읽기와 해석은 “해석자의 위치 (Position)”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서 본문 (Text)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읽고 해석할 때 해석자 (Interpreter)의 문화적, 사회적 혹은 이념적 관점과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읽기와 해석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유대 민족주의와 로마 제국주의의 관계”, “여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이러한 주제들을 연구하면서, 우선 기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성서 해석학적 입장과 관점을 조사하고 점검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Luke)의 신학적 입장을 분석했다. 끝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신학적 태도와 관점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신학적 입장과 비교 분석한 결과로 얻어진 하나의 새로운 읽기와 해석을 제안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첫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개종하게 된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주장한다(사도행전 10-11장). 하지만 고넬료의 개종 전에 등장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학자들의 입장과 관점을 지적할 수 있다(사도행전 8장). 물론 사도행전의 첫 이방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 바람에 꽃아 둔 플라스틱 대금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 장 세 철 동문(67회)을 찾아서—

· 인터뷰 및 정리: 김범수(대학원 박사과정)

바람, 구레나룻, 전라도 사투리, 그리고 바람에 살며시 고개를 내민 플라스틱 대금. 사람에 대한 인상은 참으로 오래 간다. 내가 장세철 동문을 처음 만난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그 이미지의 잔상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르겠다. 장세철 동문이 과방에서 간혹 연주했던 대금은 모든 사람의 귀를 집중 시키기에 충분했다. 외모부터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그에게 사람들은 많은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10년동안 간직했던 그 이미지를 가슴에 담아두고 안산을 찾았다. 안산에는 장세철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음악 배움터>가 있는 곳이다. 마치 속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던 그가 지금은 안산에서 대금을 연주하는 음악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그리고 학원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언뜻 이상하게 보이기도 한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길은 무척이나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선택한 길이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많은 고민과

상념을 담은 공간이었다.

<우리 음악 배움터>에 도착했을 때, 장세철 동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세월의 흔적이 꽤인 탓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말쑥한 모습이었다. 학교 다닐 때, 그는 늘 구레나룻을 기르고 다녔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그의 모습에서는 구레나룻이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나는 구레나룻에 대한 단상으로 인사를 했다. 전날 공연 때문에 수염을 말끔하게 밀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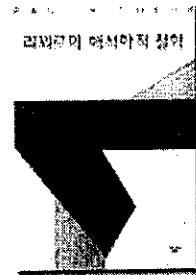
장세철 동문은 학원 구석에 놓인 컴퓨터 앞에서 회계정리를 하고 있었다. 본인도 계면쩍었는지, "이게 적자 운영의 실상이다!"라고 말한다. 토요일 오후 학원은 너무도 조용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너무도 이상한 곳이었다. 대다수 신도시가 그러하듯이 상가 밀집 지역에 사람은 없고 사람을 기다리는 상가들만 준비할 뿐이었다. 적자로 운영되는 학원 일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을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이 로마 백부장이 첫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에서 서구 중심적인 성서 읽기와 해석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방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을 서구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하는 흑인(이디오피아 내시)으로부터 잡을 수 없는 서구 학자들의 해석학적인 입장과 관점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성서 본문에 대한 해석자의 입장과 관점의 중요성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 왔던 서구 성서 학자들의 읽기와 해석에 그들 나름의 해석학적인 오류와 간과가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도적인 서구 성서학계의 그룹에 가려진 주변화 되고 소외되었던 읽기와 해석에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새로운 성서 읽기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읽기와 해석을 제안할 때 기존의 서구의 성서 학계의 훌륭한 연구와 해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새로운 성서 읽기와 해석은 성서 본문의 배후에 가려진 숨겨진 목소리(The Hidden Voices)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서 학계에서 간과하고 무시해 온 비서구적인 성서 해석학적 입장과 관점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구 성서학계의 풍부한 연구 위에 지금까지 주변화 되고 간과되어 왔던 비서구 성서학계의 해석학적 입장과 관점을 포함해서 함께 읽고 해석하는 대위법적(contrapuntal) 태도와 입장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새로운 성서 읽기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60회 · 남서울대학교 강의 전담교수)

### ◇저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김 종 결 지음 / 리피르의 해석학적 철학 / 한들 펴냄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악의 상징〉, 〈해석에 대하여〉 〈기억, 역사, 망각〉 등 철학과 신학, 문학, 정치학과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자 폴 리피르의 해석학적 철학 속에 나타난 기독교적 특징을 밝히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목적은 리피르의 초기 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철학적 사고를 밝히고, 아울러 인간의 유한성과 오류가능성, 그리고 악의 사실성 및 개념을 들추어냄으로 철학 이전의 표현인 상징과 신화의 해석을 통해 인간 본성을 규명하고, 기독교 종말론을 향한 희망의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값 8,000원)



있어야 하거든. 비록 돈은 안 되지만 이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국악을 접할 기회가 생기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악을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면 더 좋고.

학원은 아마도 자기 직업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배가 말하는 학원 상태는 열악하지만, 단지 몇 명이라도 우리 음악을 접할 기회만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듯 했다.

선배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학원은 두 명이 운영한다고 한다. 선배가 있는 악단에서 대금을 연구하는 사람이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집에서 학원 운영을 반대한다고 한다. 금전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만 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비록 안산이라는 공간이 협소하고,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기에 국악인으로서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점심을 먹으면서 주위 사람들에 관한 안부며 몇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조용한 '우리 음악 배움터'로 돌아왔다.

### #나에게 음악이란

-어떻게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죠?

-너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구나. 대금

을 연주하기 전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만들어진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곧바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에 가입했지. 그때부터 음악을 하기 시작했지.

내가 선배를 만난 것은 91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금을 불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선배가 메고 다니던 바랑 주둥이에 플라스틱 대금이 꽂혀 있었던 장면은 떠오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금 살 돈이 없어서 플라스틱으로 대금을 손수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 선배가 국악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음악'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는 사실은 놀랍기도 했다. 나에게 장세철 선배는 학부 다닐 때부터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 각인 되었던 탓일 게다.

-학생회 활동을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아마도 문화부장이었을 거야. 그때 결국 만들어진 연주는 중단했지. 대신에 5만원 주고 바이올린을 샀던 기억이 나. 만돌린이랑 바이올린이랑 원리는 같거든. 만돌린은 피크를 사용하고, 바이올린은 활을 사용한다는 것 빼고는 말이야. 그러다가 3학년이 되어서는 바이올린도 그만 뒀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지. 이왕 음악을 좋아하고 군대도 갈 바에는 트럼펫을 연주해서 군악대로 가자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방위로 갔잖아. 그 때는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별 생각 다했

#우리 음악 배움터

장세철 동문이 <우리 음악 배움터>라는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한다. 1년이 지나면 최소한 적자 운영은 면해야 할 텐데, 사정이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기야 서울에서 보습학원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곳 안산에서, 그것도 학과 보충 학습이 아닌 대금과 가야금을 가르치는 학원이 자리잡기는 좀처럼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학원 근처 식당에서 추어탕을 먹으면서 안산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학원의 적자 운영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 학원의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죠?
- 거참.

장세철 선생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수강생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 모양이었다.

-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12명.

그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적자 운영을 지금까지 감내하고 있었던 그였다. 그렇게도 힘든데 학원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세철 선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어색함을 느껴야 했다. 내 머릿속에서 학원이라는 공간은 교육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보다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공간이다. 나도 지금 학원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

▲ <우리 음악 배움터>에서 장 세 철

로도 계속 그곳에서 생계를 위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생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 적자 운영의 심각성은 조금 전에 봤잖아.

식사하러 오기 전에 회계기록에서 대략 적자 운영을 하는 학원의 상황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고집스럽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이곳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기껏해야 보습학원만 되는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면 장사하는 사람만 있지 손님은 없어.
- 이 식당도 점심 시간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 벌써 학원을 운영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지. 그래도 학원은 계속 운영해야돼. 사람이 전망이

지. 트럼펫으로 시위대에 합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말이야.

선배는 학창 시절 꾸준히 학생회 활동을 했었다. 3학년 때는 철학과 학생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그리고 4학년 때 인문대 학생회에서 활동했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군부 독재가 이어지던 시절이었고, 시대에 대한 저항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때 선배는 자신의 음악이 이 사회에, 그리고 시위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 # 인생을 바꾼 대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금 연주는 하지 않았네요?

-그 얘기도 하자면 길지. 내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우리 형이야. 형은 교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국악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어. 하루는 형이 단소를 집에서 불고 있는 거야. 시골에서 살다가 단소라는 악기를 그때 처음 본 거야. 그것도 대학교 4학년 때. 그런데 그 음색이 너무 좋았어. 생각해보면 그 때 형의 연주가 별로였지만, 단소의 음색은 정말 가슴에 남더라구. 그때부터 국악에 심취하게 됐어. 단소를 사고, 교본도 사서 혼자 연습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김영동의 음악을 듣고 대금이라는 악기에 매력을 느꼈지.

-대금으로 편입까지 보셨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형의 영향력이었지. 형이 교

대를 다니다가 제적을 당했어. 지금도 그렇지만 교대를 다니면 군입대를 하지 않거든. 그런데 제적을 당하면서 군입대를 한 거야. 그것도 전투경찰로. 어느날 형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 그리고 나랑 얘기를 많이 했지. 형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나 역시 데모하러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많은 얘기를 했지. 그 때 형이 그 얘기를 했어. 어차피 학교도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너만의 무기를 준비하라고.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을 찾아보라고. 형은 이런 얘기를 했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음악을 하자고 결심했어. 91년도에 휴학을 하고 대금을 배웠지. 그때 나도 읍사무소 방위 생활을 하게 됐고, 고향에서 편하게 대금을 볼 수 있었지. 뒷산에 올라가서 대나무 잘라서 대금 연습을 했고, 그때 산조를 다 외웠어.

인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대학생들은 고민해야 했기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선배도 그런 경우였을 것이다. 많은 고민을 했고, 방황도 했을 것이다. 음악을 선택했지만,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분으로서 진로를 수정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랜 고민 끝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시

거듭나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 복학을 하면서 고민을 했지.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3년을 다녔는데,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졸업은 일단하고 중앙대에 학사 편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국악과로 편입을 했지.

### #시립 국악관현악단원

-국악단에는 언제부터 활동했죠?

-벌써 6년이나 됐네.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지. 학비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의 이곳에서 단원을 모집한다기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 그리고 다시 대학원에 다니려고 했는데,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원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

-악단은 어떻게 활동하죠?

-일상적으로 연습하고, 공연도 자주하고. 뭐 그렇지.

악단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나누었다. 아직까지 문화 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이다. 언젠가 뉴스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며 예술 단체장에 대한 얘기를 접한 적이 있었다. 그런 보직은 아직까지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출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음악인들은 도제식 수업이 익숙해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선배는 때로 자신이 음악인들과는 한 걸음

쯤 떨어져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도제 수업을 받으며 음악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에 느끼는 자연스런 감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어느새 악단에서 대금 수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동문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선배와 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선배는 평소 고맙게 생각했던 동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신하령 선생님하고, 태환이 형 생각만 하면 아직도 고마워. 물론 성길이기도 그렇고. 내가 대금하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야.

선배가 아마도 휴학을 했을 때, 대금을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레슨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구태환 동문이 소위 '장세철 후원회'를 조직했다고 한다. 그래서 신하령 선생님이 매달 만원씩, 그리고 군대에 있었던 조성길 동문이 5천원씩 보내주었다고 한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 돈으로 레슨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장세철 선배에게 든든한 지원이고 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후원해주고 아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배가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CD를 여러 장 받았다. 관심있는 이에게 주라는 당부였다. 집에 돌아와서 선배가 연주한 국악은 듣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집에서는 은은한 국악의 향기가 물어나고 있다. ♣



## 동 문 회

### I. 동문 소식

▶ **이명수** 동문(40회 · 송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동문의 작품 "그날 그날에"가 지난 2월 27일~3월 1일까지 일본 제일한국 YMCA에서 무대에 올랐다. 분단의 아픔을 일본인들이 주축을 이루어 공연해서 이목을 끌었다.

▶ **임상호** 동문(42회) 3월 29일 경찰청 치안정감(차장)에 부임했다. 74년 8월 경위로 입문해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을 역임했으며, 200년 10월 21일에 흥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강철철** 동문(53회 · 송의여대 교수) 5월 19일부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하였다.

▶ **박삼열** 동문(60회)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 대한 질료형상론적 해석」이 한국철학회에서 발간하는 『철학』 제74집에 게재되었다.

▶ **박유민** 동문(74회) 작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쇼핑몰 주소는 <http://4u.iowner.co.kr> 이다.

## 철 학 과

### I. 교수 동정

▶ **故 怡耕** 조요한 박사 1주기 추도식이 3월 4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 16층

뱅크스클럽에서 있었다. 고인의 지인과 제자들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회상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고인의 『예술철학』 개정판과 유고집 발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유족과 제자들이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한편 고인의 장남 조경진 교수(서울시립대)와 차남 조경덕 교수(서울대)는 1주기에 즈음하여 고인의 전공이었던 서양고전철학과 예술철학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을 철학과에 기탁하였다. 유족은 지난해에도 1천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학교 당국은 그것을 이경철학강좌 기금으로 적립해 둔 바 있다.

### II. 학과 동정

▶ **철학과 학생회**에서는 3월 28-29일 1박 2일로 신철원 한탄강 레프트로 전체 M.T를 다녀왔다.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참석하여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

▶ **대학원**에서는 4월 10일 석·박사학위논문 중간 발표를 하였다. 박사과정에 김시천 씨(66회)는 「漢魏(노자) 이해 변화 연구」로, 이지성 씨(대학원)는 「S. Hauerwas '내러티브 윤리'의 덕 윤리 보완 가능성 연구」로, 석사과정에 박채훈 씨(69회)는 「공자의 和사상」으로, 김윤희 씨(대학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동의 철학」로 각각 논문을 발표하였다.

▶ **대학원 학생회**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동문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 한편 이 날 대학원 학생회는 총회를 거쳐 학생회장을 선출하였다. 학생회장으로는 김범수 씨(대학원)가, 총무로는 백두환(72회)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 주소 업데이트

- ▶ **우문선** 동문(36회·목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 114번지
- ▶ **원용국** 동문(36회·목사)  
[휴대폰] 011-9788-1937
- ▶ **장영호** 동문(51회·교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뉴신성아파트 102동 1102호
- ▶ **배선복** 동문(53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08-7 직원주택 104-1
- ▶ **박금용** 동문(67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43번지 신동아화재빌딩 22층 대한생명 정동법인 영업소  
[전화] (02) 6321-3325, 017-722-4156
- ▶ **소은영** 동문(69회)  
[전화] (02) 494-9787, 016-426-2750
- ▶ **차봉준** 동문(70회)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91-3번지 부영아파트 101동 202호
- ▶ **신우현** 동문(71회)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102-85
- ▶ **김의수** 동문(대학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08-4 B01호  
[전화] (031) 458-7802

### 알림

1.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희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 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예금주) 승실동문

우리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 계간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20호 (2003 여름)

2003년 6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사: 문 영 식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su.ac.kr